



동국대학교, COVID-19 위기 속 시스코 웹엑스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직면 과제

- 대면강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원격강의 시스템 필요
- 짧은 시간 안에 전체 강좌를 원격강의로 대체해도 수용 가능한 확장성 높은 클라우드 인프라 검토 필요성 시급
- 개인정보 유출 및 각종 보안사고 방어를 위한 강력한 보안 정책 필요
- 테스트 기간이 충분치 않은 만큼 초보자라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사용 편의성 필요

혁신 성과

- 실시간 양방향 원격강의 시스템 마련으로 대면강의 이상의 호응
-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경제성 및 확장성 동시 보장
-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서비스로 수업 중 보안사고 우려 제로
-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원격 강의에 경험이 없는 교수도 원활하게 수업 진행
- 무제한에 가까운 동시 접속 보장으로 수강생 변동에 따른 강의실 수급 문제 해소
- 원하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학습 가능

동국대학교에 도입한 시스코 솔루션

- Cisco Webex Meetings



동국대학교는 일제 시대였던 1906년 불교계 지도자들이 교육을 통해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데 기여하고자 세운 불교 대학으로 광복 이후 1946년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으며, 1953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했습니다. 극적인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학교의 변함없는 목표는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의 인재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구현 위해

'시스코 웹엑스'에 주목

오늘날 동국대학교가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학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이에 COVID-19 확산에 따른 개강 연기, 원격강의 확대 방안이 권고된 그 당황스러운 순간, 학교는 당황하지 않고 사태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온라인강의, 실시간 원격강의에 관심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는 **대면강좌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양방향 원격강의를 지원할 수 있는 검증된 솔루션**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클라우드 컴퍼런싱 솔루션인 '시스코 웹엑스(Cisco Webex)'**가 바로 그 주인공으로, 강력한 컴퍼런싱 기능은 물론 전세계에 마련된 웹엑스 전용 데이터센터를 통해 서비스가 이뤄지기에 경제성과 확장성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 2억명 이상,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95%가 협업을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신뢰도도 높았습니다. 게다가 완벽한 사용자 암호화, 중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및 업계 최고의 보안 인텔리전스 그룹인 시스코 Talos의 지원 하에 일반적인 학교의 보안 수준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보안 보장이

가능하기에 원천적으로 보안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별도 인프라 도입 필요 없어 신속하게 시스템 완비 후 테스트까지 완료

COVID-19 확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동국대학교는 전체 대면강의를 실시간 원격강의로 대체하기로 결정하고 시스코 웹엑스 도입을 서둘렀습니다. 시스코 웹엑스는 고비용으로 별도의 하드웨어 인프라를 마련하지 않아도 전세계 마련된 25개의 웹엑스 전용 데이터센터를 통해 백업 서비스까지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빠르게 완비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교수, 학생의 완벽한 사전 준비로 개강 첫 날부터 실시간 양방향 원격강의 순조롭게 진행

3월 10일부터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원격강의를 위한 시스코 웹엑스 교육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강 이전에 학생들과도 샘플 강의를 진행하는 등 간단하게나마 테스트 진행까지 모두 완료하고 현실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는 개강 첫 날인 16일에 86%에 이르는 강의를 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도인만큼 실수와 오류가 발생되기도 했지만 사소한 부분들로 수업 진행 자체에는 큰 차질이 없었습니다. 원격강의 매뉴얼 제공부터 원격수업 지원 콜센터, 직원과 학생들로 구성된 긴급조치팀을 통해 수업시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대한 전화상담 및 현장출동 조치 등으로 최대한 상세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스코 웹엑스의 사용 편의성과 시스코의 전폭적인 기술지원도 한 몫을 했습니다. 특히, 동시 접속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시스코의 안정적이고 유연한 클라우드 인프라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줬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개강 연기, 원격강의 확대 방안은 급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한발 앞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 온 동국대학교에는 시점이 조금 앞당겨진 것 외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스코 웹엑스 미팅은 별도의 인프라를 마련하지 않아도 전세계 웹엑스 전용 25개 데이터센터를 통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기에 특히, 준비 시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이었습니다. 확장성, 경제성, 사용 용이성 덕분에 단 몇 주 만에 교수, 학생들 모두 만족스럽게 새로운 형태의 강의에 참여하며 COVID-19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정보처장
이영섭 통계학과 교수

혹시나 했던 교수도, 학생도 기대이상 편의성과 몰입도에 만족도 높아

학교는 개강한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전체 강의를 100% 실시간 원격강의로 대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들과 학생들은 실시간 양방향 원격강의 시스템에 기대 이상이라며 크게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새로운 시도에 긴장감을 표시했던 교수들은 막상 경험하고 나니 손쉬울 뿐 아니라 신선하고 흥미롭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한, 수강생 변동에 따른 강의실 배정 문제에서도 자유로워졌을 뿐 아니라 수줍음 때문에 질문을 꺼려하던 학생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한다며 원격강의에 대한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생들의 반응은 더욱 긍정적입니다. 자료공유, 판서, 동영상 재생, 채팅, 퀴즈 등의 기능이 원격강의를 대면강의보다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피드백도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을 찾아 다니느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개개인에 부합한 최적의 학습공간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트북 등 수업에 필요한 부가적인 디바이스도 공간의 제약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수업에 대한 몰입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 환경에서는 앞자리 학생들에 가려 판서 내용을 놓치거나 주변 소음으로 일부 강의 내용을 놓치는 일도 없습니다. 교수님 판서 내용은 눈앞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수업 이후에는 수업 녹화본까지 기존의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통해 바로 서비스가 되기에 언제라도 다시 듣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개강 이후 각종 오류와 녹화된 단방향 수업에 대한 강의 집중도 하락 등으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학교는 시스코 웹엑스를 통한 양방향 실시간 원격강의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가치를 한껏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양방향 실시간 원격강의 시스템 환경에 더욱 최적화된 교수법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학생들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더불어 급작스럽게 도입된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 혼돈을 호소하고 있는 다른 대학들에게도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여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 인재 양성 노력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시스코 웹엑스 솔루션이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웹엑스 홈페이지 가기



상담 신청하기



문의 전화 하기
080-377-0880
(상담 시간 : 오전 9:00 - 오후 6:00)



“실시간 원격 강의를 처음으로 도입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 사용법이 쉽고 음질이나 화질도 좋아 원격 강의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녹화 영상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기 때문에 강의에 대한 품질도 보장할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동국대학교
김현석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자료공유, 판서, 동영상 재생, 채팅, 퀴즈 등으로 대면강의 이상으로 효율적일 뿐 아니라 피드백도 가능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적극 활용이 됐으면 합니다.”

동국대학교 수강생